

물산업 PM, 해외의 상하수도 현장을 가다

최고의 강연진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우리 협회는 2009년부터 정부의 10만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물산업 기초역량과정, PM 기초과정, 외국어 역량과정으로 구성되어 집합교육 11주, 해외교육 1주 그리고 기업 인턴십 4주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재까지 2기에 걸쳐 110명의 미래 청년인재가 양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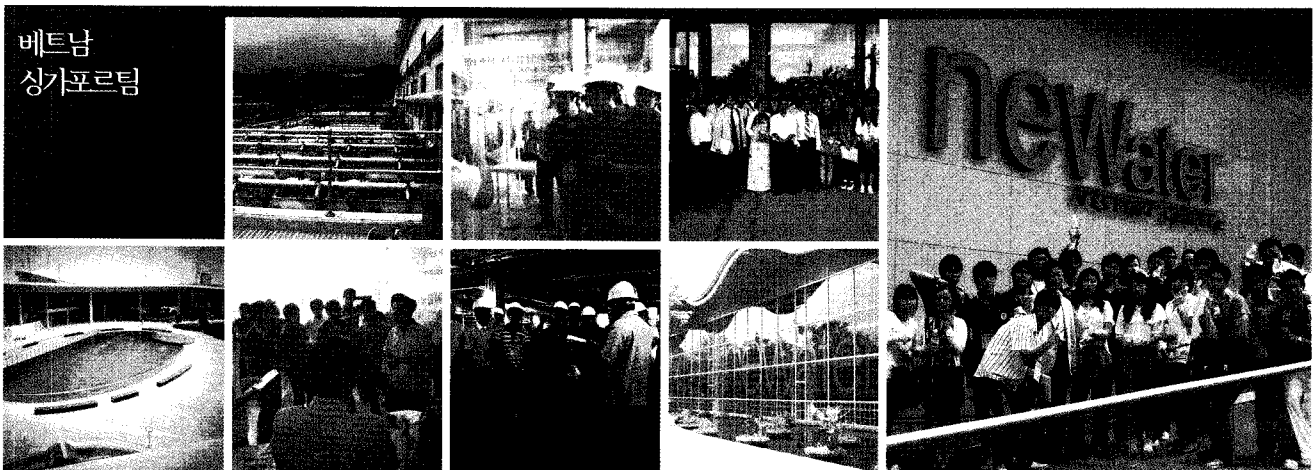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국내의 물산업 트렌드와 향후 전망, 상하수도 기초이론 및 실제 해외사업, 신기술이라는 범위 안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교수, 관련 업계 임원들이 이론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제2기 과정 중 진행된 해외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리포트를 들어보자.

떠나자! 넓은 세상으로!

교육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해외 현장교육이다. 이를 위해 지난 석 달간 상하수도 관련 지식 습득에 매진하였고, 건설영어·비즈니스영어 삼매경에 빠졌었다. 상기 과정들을 통해 만반의 사전 지식을 갖추었고, 드디어 우리 해외의 상하수도 현장으로 떠나게 됐다.

베트남·싱가포르팀과 일본팀 두 조로 나뉘어 각국의 물 관련 기관과 시설을 견학하는 일정이었다. 조별로 부여받은 미션 수행이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는 현지에서의 조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물산업의 벤치마킹 포인트와 전략 등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물산업에 있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는 우리가 배우고 생각했던 모든 상하수도 기술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고 있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Membrane(막여과) 기술만 하더라도 이미 2003년부터

27만m³/일 의 Chestnut 정수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Hyflux' 라는 물 관련 대기업을 육성해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선진국이지만 물이 부족하여 하·폐수조차도 먹는 물로 만드는 NEWater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처리 기술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야말로 미래의 무한성장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였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나라 물산업의 원조를 위해 수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원조를 통해 새로 지어진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을 때엔 부러움 반 시기심 반으로 그 곳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의 원조로 근사하게 지어진 Tien Than 정수장(1차 : 10만m³/일)을 방문했을 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원국에 대한 외교관급 대우를 해주셔서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배운 기술들이 이런 개발도상국가에서 차후 활용되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면서 타국의 국민성·생활여건·문화·언어 등 주변 여건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일본은 이미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보급된 나라지만,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시설이라는 하수처리장의 선입견을 버리고, 최신식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하여 도심지 한복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리아케 하수처리장의 경우 외관이 UFO를 연상시켜 이곳이 최신 시설을 갖춘 처리장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하수시설을 지하 20m 이하에 매설하여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대심도터널을 보는 순간, 일본이 신기술의 효율성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임이 느껴졌다.

미래 물산업 역군의 길라잡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해외 물산업에 대해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편협한 지식과 사고를 깰 수 있는 계기로써 이번 탐방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미래의 기술자로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고, 아울러 영어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하는 절실함과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피력했다.

물산업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끊임없는 투자와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물산업 PM 양성과정' 을 통해 미래의 희망이자 경쟁력인 물산업 인재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꾸준한 인재양성 및 배출을 통해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